관세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11. 4.(수) 10:00

관세청,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6」 성공적 마무리… 수출기업 통관 장벽 낮췄다

- 미국 관세청·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등 글로벌 관세당국 및 기업 관계자 721명 참석
- 미국 통관 실무 사례 공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최신 통상 이슈 대응
- 주요국과 7차례 양자면담 진행,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불확실성 해소 기여

관세청은 11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사흘간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KCW) 2026」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대미·대유럽연합(EU) 수출기업 158개사와 수출입 전문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브라질·베트남·필리핀 등 주요국 관세당국 고위급 및 국제기구(UN ESCAP) 관계자를 포함해 총 721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직접 참여해 미국의 관세·통관 제도와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사례 및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미국 현장 실무진들의 생생한 설명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현장 정보와 수출 과정의 필수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순한 제도 소개를 넘어 실제 집행 경험과 현장 사례까지 공유했다는 점에서 참여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관세청은 행사 기간 중 주요국 관세당국 고위급과 총 7차례의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마약 및 지재권 단속,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 세관상호지원협정 등 국가별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및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과 검증 시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이어 개최된 국제원산지 세미나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법부터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대응까지 다루며 우리 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전방위로 지원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번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6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통관 위험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고위급 양자면담에서 논의된 협력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6에서 다룬 주요 관세·통관 정책과 기업 유의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여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더 많은 수출기업이 관련 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담당 부서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주연 (042-481-3210)
		담당자	사무관	강홍익 (042-481-32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